

(2026년 10월 5일 월요일 4면)

전정·유미현 송파구의회 의원

가락시장역 유희공간 활용방안 현장 논의

송파구의회 전정 의원과 유미현 의원은 지난 9월 17일 가락시장역을 찾아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, 김광철 의원, 지역주민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7번 출구 인근 지하 2층 유희공간의 공익적 활용방안을 논의했다.

이날 참석자들은 약 55평 규모의 유희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공간의 현황과 이용 여건을 확인하고,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용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
전정 의원은 “가락시장역 내 유희공간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


유미현 의원은 “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”며 “주민 수요와 실제 이용 가능

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”고 밝혔다.